

## 서울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 노무현 후보 연설

### ■ 새 정치와 평화를 위한 노무현의 제안

존경하는 외신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나 뵈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이번의 대통령 선거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대선은 수십 년 동안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온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 다수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민통합21의 정몽준 대표와 후보 단일화를 이루었습니다. 저와 정 대표는 우리 정치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낡은 정치를 타파하는 정치개혁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번 대선에서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원칙과 정도의 정치로 국민통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사회의 통합이 없으면 민주주의

도 시장경제도 모래 위의 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이번 선거에서 돈 안드는 선거, 정책 선거를 지향하면서 법이 정한 한도에서 선거자금을 쓰고 그 내역을 완전 공개하는 선거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둘째, 이번 대선은 경제개혁을 통해 한국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지켜지고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질서가 자리 잡게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관치경제로 회귀할 것인가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경제질서가 투명하고 공정해질 때 우리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함께 잘 사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외국 기업으로 하여금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마련하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어느 후보보다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비전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관되게 정경유착과 지역주의 정치에 맞서 싸워왔으며 국민과 역사의 편에 서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선택이 저에게 수많은 정치적 시련과 역경을 주었으나 이제 국민들은 저를 성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주위에는 과거 특권세력도 민주주의를 탄압한 경력자도 없습니다. 대신 한국을 세계 12대 무역국에 걸 맞는 선진사회로 이끌어 나갈 아이디어와 의지로 충만한 참신한 인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낡은 정치와 경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외국과의 관계도 왜곡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제가 펼쳐나갈 정책들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진정으로 신뢰받고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로 자리 잡게 만

들 것입니다.

셋째, 이번 대통령선거는 이제 한반도에도 세계사의 흐름에 맞추어 남북간 평화구조가 정착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냉전 대결을 지속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9·11테러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반도의 평화구도는 모색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비전과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통적 우방국들과의 관계는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 안보에 불가결한 동맹국입니다. 과거 한미동맹은 한국이 고속 경제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안보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한반도가 남북대결에서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0년간 한미동맹관계의 발전과 탈냉전 시대에 맞추어 이제 한미관계는 보다 수평적이고 균형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적응하는 것이야말로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만나 한미동맹관계를 다지고 북한 핵문제를 협의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분명 제네바합의와 남북핵공동선언 등 여러 가지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하게 말해두고 싶습니다.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하루 속히 중단해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개혁과 외교적 독립탈피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강경한 압박정책만을 동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시키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타협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또한 무한한 잠재력과 개발 가능성을 지닌 동북아시아 주변 국가들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심화는 공동번영이라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남북한 관계 개선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제공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진전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한국은 동북아라는 거대한 시장을 배후에 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이며, 외국 기업들은 동북아 공동번영의 파트너로 그 열매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국민들은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한국사회 저변에 흐르고 있으며 저는 그러한 흐름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 정치, 깨끗한 선거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희망을 그리고 국제사회에게는 새로운 한국의 위상과 리더십을 보여줄 것입니다.

외신 기자여러분, 여러분은 과거 독재와 맞서 싸우던 한국 민주화의 역정을 지켜보았고 이를 세계에 알려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이

나아갈 길은 멀고 앞으로는 많은 일들이 용기 있는 자들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세계에 정확하게 알려주심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도와주시십시오.

한국에서의 여러분의 생활이 보람차고 즐거운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